

故 오승윤 화백 쓸쓸한 1주기

# 진실 찾기 법정 공방... 추모행사 없어

지난 12일은 이 지역 중진서양화가 오승윤(1940~2006) 화백이 세상을 떠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유족은 물론 광주미술협회 등 그 어디에서도 고인의 화업을 기리는 별도의 추모행사가 열리지 않아 쓸쓸한 1주기를 보냈다. 이는 유족측이 화랑을 상대로 한 작품 반환소송 등 학습출간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 추모행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승윤 화백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오 화백의 학습출간을 맡았던 Y 화랑측은 상대로 제기한 혐의, 횡령,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경기 고양지원에서 1년째 진행 중이다.

유족들은 학습 출간 계약 미이행, 판화 저작권 침해 등 화랑측의 부당한 대우에 좌절한 오 화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진실파악과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Y화랑이 학습출간을 위해 건네받은 작품을 작가와 상의없이 달력을 통해 제작했을 뿐 아니라 학습이 인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지급까지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랑측은 모든 일은 작가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불법사실은 없었



생전에 화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오승윤 화백. &lt;광주일보 자료사진&gt;

## Y화랑 상대 원화 반환소송 아직 해결점 못찾아

## 법적 절차 풀려야 기념사업... 미협행사도 전무

다고 맞서는 등 1년째 '진실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족들은 또 오 화백이 Y화랑에 제공한 유화 19점, 드로잉 8점과 화랑이 제작한 판화 7천여점 등을 돌려받기 위해 작품 반환소송과 가져온 신청을 냈지만, 이 마저도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안도 재판부의 주재로 수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작품 전부를 돌려달라는 유족과 일부민을 반환하겠다는 화랑측의 주장이 맞서 1년 여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들은 학습제작을 위해 작품을 (화랑측에) 건넸지만 Y화랑이 학습을 출간하

지 않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화랑측은 금강산 등 50호 이상 대표작 4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만을 유족에게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평고 있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족들은 고인의 1주기를 기념하는 별도의 추모행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음력 기일인 오는 31일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고인의 제사를 지내기로 하는 등 일체의 주모사업을 이루고 있다.

오 화백의 딸 수경씨는 "고인의 유품을 풀어주기 위한 법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식이나 추모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족들의 생각이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가난한 화가들이 화랑의 횡포에 희생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이자 한국 서양화단의 거장인 오승윤 화백은 지난해 1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계간 '시와 사람' 등지 이전 기념 문학강연

### 19일 광주 금동 사무실

계간 '시와 사람'(발행인 강경호)이 오는 19일 오후 5시 사무실(광주시 동구 금동 8-1번지)에서 문학강연을 갖는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2층 건물을 리모델링 한 새 사무실로 이전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간 '현대시학'

의 주간 정진규씨가 '미래의 시인들에게'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시인 엄난숙(40)씨가 '시와 사람' 신인상(2006년)을 수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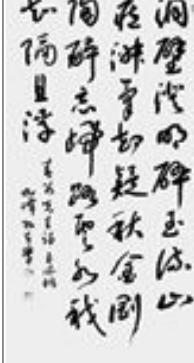
'시와 사람'은 광주문화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시낭송과 시극, 문학강연 등 다채로운 문학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224-5319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일북회전 1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운암(雲巖) 조용민 선생의 문하생 모임인 일북회(一墨會·회장 공재학)가 오는 1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26회 회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100여명이 참가해 하시김인후 선생과 두보의 시, 채근 등 선인들의 글을 다양한 서체로 해석한 작품과 묵죽, 석란 등 수묵화를 선보인다.

일북회는 1981년 창립전을 가진 이래 매년 회원전을 열고 있으며 2001년부터 학생서예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380-8819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재학 작 '춘곡선생 시 옥류동'

## 광주비엔날레 개혁작업 본격화 되나

## 용역 통해 인력·재정 진단

### 예술총감독 조기 선임·전시 예산 대폭 확충 등 주목

오는 8월부터 비엔날레 재단의 인력과 예산이 감축되는 등 광주비엔날레 개혁작업이 본격화 된다.

현재 재단의 상근 인력 21명을 감축하기 위해 유사조직 통·폐합을 비롯 재단 직원을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비엔날레 개혁기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인력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 인력 교환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재단 기금의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 기금 285억원을 바탕으로 각적인 수익증대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재단기금관리 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재단은 오는 5월께 용역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재단이 사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께 개혁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비엔날레 재단은 예술총감독을 예년보다 빠른 오는 3월께 선임키로 하고 연임 여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용역과제에 포함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단은 우선 기존 행사개최 시 40% 대에 머무르고 있는 전시예산을 7회 대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음악협회 한일 우호콘서트

### 20일 샷뽀로 기타라 흘

광주음악협회(회장 임관표)가 일본 샷뽀로 음악협회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광주음악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샷뽀로 기타라 흘에서 열리는 우호콘서트를 시발점으로 매회 상호 교류 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임해철, 김백호, 김진희, 나원진씨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의 민요와 현대 음악을 선보일 예정.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인 김선철씨의 '아리랑 변주곡'과 이진우씨의 '첼로와 대북연주'를 일본 음악인들이 직접 연주할 예정으로 있어 더 의미가 있다.

또 일본측에서는 피아노 독주와 플루트 4중주곡을 연주하며 한국과 일본 출연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 오페라 '리골레토'의곡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퀸던의 국사거리! ♥ 예매! 544-0800

M·편 허브 (12세) 최고급판  
2관 디지털 (12세)  
3관 미녀는 괴로워 (12세)  
4관 어라곤 (12세) 허브 (12세)  
5관 에리곤 (12세)  
6관 박물관이 살아있다 (3세) /조폭마누리3 (15세)  
7관 드디 (12세)  
8관 블러드 디아몬드 (18세)  
9관 더스노트 리스트 네일 (12세)

Megaton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벤트 주제장 이용권 3시간 무료 (단, 영화관과 함께 청원 3시간 초과시 청원 2000원 부과 ★박물관이 무제한 공짜 (매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퀸던의 국사거리! ♥ 예매! 544-0800

M·편 허브 (12세) 최고급판  
2관 디지털 (12세)  
3관 미녀는 괴로워 (12세)  
4관 어라곤 (12세) 허브 (12세)  
5관 에리곤 (12세)  
6관 박물관이 살아있다 (3세) /조폭마누리3 (15세)  
7관 드디 (12세)  
8관 블러드 디아몬드 (18세)  
9관 더스노트 리스트 네일 (12세)

Megaton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벤트 주제장 이용권 3시간 무료 (단, 영화관과 함께 청원 3시간 초과시 청원 2000원 부과 ★박물관이 무제한 공짜 (매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 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허브 (12세)  
2관 언니가 간다 (12세) /오래된 점원 (12세)  
3관 득공 (12세)  
4관 조폭마누리3 (15세) /미녀는 괴로워 (12세)  
5관 대자부 (12세)  
6관 박물관이 살아있다 (3세) /007카지노로얄 (15세)  
7관 에리곤 (12세)

금토(2일) 심야상영! 주제장 2000원 (3시간무) \*매주 103명 보너스 2000원 관람권  
\*매우 103명 보너스 2000원 관람권

— 흘 —

출처: 새로운 삶의 힘을 키워주는 박지연이 온다!  
티라곤

1관 더지파 (12세)  
2관 블록 (12세)  
3관 빙글판이 살아있다 (3세)  
4관 어리구 (12세)  
5관 부그와 워리어 (9세/10세) /언니가 간다 (12세)  
6관 블리드 디아이몬드 (청소년 관람등급)  
7관 조폭마누리3 (15세)  
8관 미녀는 괴로워 (12세)  
9관 허브 (12세)  
10관 더스노트 라스트네일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허리잡이 상영합니다 1588-7941

티라곤

한도시장 영영상장 \*메리 www.joycbo.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해남점 상무점

한남점 (무료화장면) 상무점 (무료화장면과 미드 시어터)

1관 더지파 (12세)  
2관 블록 (12세)  
3관 빙글판이 살아있다 (3세)  
4관 어리구 (12세)  
5관 부그와 워리어 (9세/10세) /언니가 간다 (12세)  
6관 블리드 디아이몬드 (청소년 관람등급)  
7관 조폭마누리3 (15세)  
8관 미녀는 괴로워 (12세)  
9관 허브 (12세)  
10관 더스노트 라스트네일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허리잡이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성촌동 한국병원 앞)

### 식당, 일식, 횟집 고기 전문점 적합

1층 50평 일대  
1층 83평(분할가능) 신축건물  
·봉선동 한국 생활아파트 정문앞

### 학원입대 (영어·논술·피부관리) 기기 1종~50평(분할가능)

·봉선동 고기 고기집 청원 10평  
·봉선동 고기 고기집 청원 10평

### 최고의 주거지역

·초·중·고 인접

### 영어학원 입대

·봉선동 생활·한국아파트 입구  
·내로외 사거리코너

·5층 103평 보)의 월 205만

·최고 인테리어 시설 비밀 포함

### 토지매도

·광신구 산정동 하남백지구(구역)  
- 단 50평 편안 75만원(자연 녹지)

8호도로변 63평(신축도로)로

### F블록 상업지역

- 대 45평 편당 750만

·동광양시 황금동 황금택지지구

- 현 사업진행 현지점

- 준주거지역 104평 편당 140만

·동광양시 도이동 택지지구

- 삼암지역 416평 편당 50만

### 상인건물매매

·봉선동 생활·한국아파트 정문앞

- 대 140평, 건평 200평, 지하 80평(주차장) 매매가 13억 5천만원

여기와 함께 고사원, 건물, 토지 등으로 80평(주차장) 신축건물

### 인애공인중개사

☏ 011-642-0391  
(삼무지구)

### 횟집건물매매

• 고급횟집·하膳食원 분양  
• 대 98평 연면적 38평  
• 6층건물 3층, 4층, 5층, 6층  
임대원료

• 1층, 2층 고급횟집 130평

• 턱자 42세(연회식 완비)

• 삼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삼무지구 주목하라

행정도시, 금융도시, 공공

기관 집중

• 매도가 건물 보고 가격  
결정 상담